“AI 시대에도 신뢰·윤리 중요”… 세계 회계 전문가 서울 집결

122년 세계회계사대회 韓 첫 개최
120개국 회계 전문가 1200명 참석
韓 회계개혁 경험 국제사회 공유
AI 확산에 회계사 역할 재정립 논의
신제윤 의장 “전문가 판단·책임” 강조



최운열(왼쪽 일곱 번째) 한국공인회계사회장과 장 부코(왼쪽 여섯 번째) 국제회계사연맹(IFAC) 회장, 신제윤(왼쪽 여덟 번째)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17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6 세계회계사대회(WCOA 2026) 개회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122년 역사의 세계회계사대회(WCOA)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막을 올렸다. 전 세계 회계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인공지능(AI) 확산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회계 전문직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17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국제회계사연맹(IFAC)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6 세계회계사대회’를 개최한다.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시작된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행사에는 120여개국에서 회계 전문가 등 1200여명이 참석한다.

대회 주제는 ‘함께하는 우리, 함께 여는 미래(Together for a Connected Tomorrow)’다. 사흘간 금융시장 신뢰와 경제 회복력, AI와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성 공시 및 회계 투명성 등을 논의한다.

◆ 韓 회계개혁 경험 공유… AI 시대에도 ‘신뢰와 윤리’ 중요

이번 대회가 한국에서 열린 배경에는 경제 성장과 국제행사 개최 역량이 자리하고 있다. 마누엘 아리아스 국제회계사연맹(IFAC) 총괄본부장은 개막 전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제안과 우수한 행사 인프라 등을 서울 선정 이유로 꼽았다.

한국이 축적해 온 회계개혁 경험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한국은 2018년 신외부감사법 시행을 계기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추진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개회식 환영사에서 AI와 지정학적 긴장, 급변하는 시장 환경이 기업의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고 있다며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는 시대일수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는 회계사의 윤리와 책임성이 제시됐다. 장 부코 IFAC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신뢰받는 이유인 핵심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며 각국 회계 전문가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아리아스 본부장 역시 최근 국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발생한 AI 부정행위와 관련해 “윤리적인 행동은 회계 전문직의 근간”이라며 “시험에서 기술을 악용하는 것은 회계사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신제윤 의장 “AI가 업무 대체해도 책임은 人”

이날 ‘경쟁력 있고 회복력 있는 경제 구축(Building Competitive, Resilient Economies)’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AI 시대에도 전문가적 판단과 책임이 중요성을 꼽았다.

신 의장은 AI가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참고문헌으로 제시해 전문 보고서가 철회된 사례를 언급하며 “알고리즘이 의사결정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 결정에 대한 책임까지 알고리즘 속으로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AI가 신입 회계사의 반복 업무를 대체하면서 기존 인재 양성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장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4대 회계법인은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각각 6~29% 줄였다. 그는 회계사가 전문가적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시장 신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신 의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일본·중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상 경험을 소개하며 “위기는 신뢰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신뢰가 사전에 구축돼 있었는지를 드러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회계는 백미러를 통해 과거를 돌아보는 전문직이었다”며 “그러나 이제 세상은 회계사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역할까지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회계사의 역할 변화를 주문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거래 위축에 중소형 증권사 실적 ‘급랭’

8개사 순익 전분기比 64%↓
평가손실·판관비 증가 겹쳐
4분기 실적 회복도 불투명

3분기 중소형 증권사들의 이익이 한 분기 만에 크게 줄었다. 거래대금이 줄어든 데다 금리 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평가손실, 판매관리비 증가가 겹치면서 실적을 발표한 8곳 가운데 6곳의 순이익이 전분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중소형 증권사 8곳(교보·한화투자·유안타·LS·현대차·우리투자·iM·DB증권)의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합계는 약 11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약 3276억원)보다 64.3% 줄어든 규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분기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은 2151조원으로 2분기(3412조원)보다 36.9% 감소했다.

전분기보다 순이익이 늘어난 곳은 iM증권 한 곳뿐이었다. 3분기 순이익은 218억원으로 전분기보다 4.1% 늘었다. iM증권도 3분기 상품운용 부문에서 72억원의 손실을 내며 적자로 돌아섰지만, 기업금융(IB)·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 순영업수익이 129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63% 늘며 이를 메웠다(별도 기준).

감소폭이 가장 컸던 곳은 교보증권이다. 3분기 순이익은 85억원으로 전분기(901억원)보다 90.6% 줄었다.

LS증권과 DB증권도 이익이 전분기의 5분의 1 아래로 줄었다. LS증권의 3분기 순이익은 64억원으로 전분기보다 85.4% 감소했다. 판관비가 633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3% 늘며 이익을 깎았다. DB증권은 순이익이 69억원으로 82.9% 줄었다.

우리투자증권은 3분기 순이익이 30억원에 그쳐 전분기(110억원)보다 72.7% 줄었다. 대손비용이 105% 늘어난 영향이다. 한화투자증권도 순이익이 116억원으로 전분기보다 57.2% 감소했다.

반면 유안타증권은 순이익이 436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9.6% 줄어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 1년 전보다는 46.5% 늘었다.

수수료수익이 2231억원으로 1년 전보다 95% 증가했고, 금융상품 평가·처분 손익도 소폭 이익을 내며 운용에서 손실을 피했다. 같은 업황에서도 운용과 비용 관리에 따라 회사별 성적이 갈린 셈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IB와 트레이딩은 자기자본이, WM은 지점망이 중요한데 지점망 운영 비용도 결국 자기자본과 연결된다”며 “자본이 적은 소형 증권사는 기관 브로커리지 비중이 커 거래대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설명했다.

4분기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김 수석연구원은 “중소형사 실적 회복에는 거래대금 반등이 중요한데 4분기 거래대금이 충분히 좋아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금리가 내려가면 거래대금 증가로 중소형사에도 간접 효과가 있겠지만, 채권평가이익은 트레이딩 규모가 큰 대형사에 더 크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아영 기자 aykim@

앤트로픽 IPO에 26조 매수 수요… 지수 편입 기대

상장 한 달간 매수 수요 집중
패시브 매수 물량 공모주 29%
스페이스X보다 편입 늦을 듯

기업공개(IPO) 이후 앤트로픽을 좇는 자금이 190억달러(약 26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미국 증시의 핵심 벤치마크 지수에 편입되기까지는 앞서 상장한 스페이스X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17일 블룸버그 통신과 외신에 따르면 앤트로픽이 19일 예정대로 거래를 시작하고 조기 편입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달 11일 장 마감 후 러셀1000 지수에, 21일 개장 전 나스닥100 지수에 각각 편입될 수 있다.

6월 상장한 스페이스X는 약 일주일 만에 러셀1000에, 상장 한달도 채 되지 않아 나스닥 100에 입성했다.

당시 FTSE 러셀과 나스닥은 대형 신규 상장 종목의 편입을 앞당기도록 규정을 바꿨다.

다만 앤트로픽의 상장 시점이 두 지수 산출기관의 12월 리밸런싱 일정과 가까워 별도의 편입 절차를 밟기보다는 12월 리밸런싱 과정에서 편입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들은 지수에 신규 종목이 들어오는 때에 맞춰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지수 편입 시점이 중요하다.

투자은행 베렌베르크는 러셀과 나스닥,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모닝스타 등 주요 벤치마크 추종 자금까지 합산할 경우 상장 후 한달간 유입되는 앤트로픽 주식 매수 수요는 190억달러(약 26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리서치업체 인트로픽은 지수 추종 펀드의 매수 물량이 앤트로픽 IPO 공모 물량의 29%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허정윤 기자

한양증권, 한국PR대상 IR 우수상

대주주 교체 후 투자자 소통 강화
성장 전략·주주가치 제고 공유

한양증권이 대주주 교체 이후 중장기 성장 전략과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투자자에게 알린 성과로 한국PR대상 투자자관계(IR)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경영진이 유튜브 생중계에 직접 나서 새 경영체제의 방향을 설명하는 등 투자자와의 접점을 넓힌 점이 수상으로 이어졌다.

한양증권은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한국PR대상’에서 IR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수상작은 ‘NEXT 70 | 다음 70년의 성장과 가치를 전하는 IR 커뮤니케이션’이다. 한양증권은 올해 IR 부문에서 단독 수상했으며 전체 수상 기업 가운데 증권사로는 유일했다. 한국PR협회가 주관하는 한국PR대상은 1993년 제정됐다. 올해 IR 부문에서는 인수합병(M&A)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등 주요 경영 현안을 투자자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한양증권은 지난해 케이씨지아이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를 새 대주주로 맞은 뒤 본업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밸류업 정책의 이행 과정과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조치도 투자자에게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김병철(가운데) 한양증권 부회장과 홍보마케팅실 직원들이 ‘제34회 한국PR대상’ 투자자관계(IR)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양증권

회계부정 신고자 보복 피해 막는다

금감원, 불이익 신고 직접 접수

회계부정을 신고한 뒤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면 금융감독원에 피해 사실을 함께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이 불이익 신고를 직접 접수해 조사하고,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핫라인을 가동한다.

17일 금감원과 권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계부정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회사의 보복을 우려해 회계부정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신고 이후의 보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그동안 각각 접수·처리해 온 회계부정 신고와 신고자 보호 사건의 정보를 공유한다. 같은 사안을 중복 조사하는 일을 줄이고, 해고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등 보호가 시급한 경우에는 신속히 협조하기로 했다. 재직 중인 신고자에게 긴급 보호가 필요할 때는 양 기관 간 핫라인을 활용해 보호조치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홈페이지의 회계부정 신고 메뉴에 불이익조치 신고 기능을 추가했다. 해당 메뉴는 금감원 홈페이지 ‘민원·신고’에서 ‘불법금융신고센터’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 신청 창구인 청렴포털과도 이 메뉴를 연계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